

元老科學技術者의 證言

〈3〉

荒蕪地에 科學知識을 普及하기까지

崔奎南博士篇



—1—

略 歷

京畿道 開城人 1898年 1月 26日 生
 松都高等普通學校(1918), 延禧專門學校 數物科(1926), 美國 오하이오 웨슬리안大學(B.S 및 M.S學位)(1930)을 거쳐 1933年 미워진 州立大學에서 理學博士學位를 받음.
 延禧專門學校 教授(1933) 國立서울大學校 教授(1945) 文敎部科學敎育局長(1948) 文敎部次官(1950) 國立서울大學校總長(1951) 文敎部長官(1956) 民議員(1958) 등을 歷任하다.

發表論文

1. Raman 効果의 分光學的 考察
2. Compton 効果의 再吟味(1929)
3. Infra Red Absorption Spectrum of HCN (1930)
4. Infra Red Absorption Spectrum of CO, (1931)
5. Announcement of the new Value of "Moment of Inertia" of the HCN Molecule 18.68×10^{-40} gm. cm² (1933)

著 書

1. 原子(1959)
2. 東雲論集(1959)

學會活動

1952年 12月 韓國物理學會 會長
 1954年 5月 學術院副會長
 1962年 10月 韓國物理學會 名譽會員
 名譽學位

♣ 物理學의 專攻動機

나는 무엇이든 徹底히 알려는 性格을 지녔다. 또 뜻 미치근하게 알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問題이든간에 따끔하게 알고 넘긴다.

그래서인지 松都高等普通學校 시절의 내 別名이 고질콜콜——.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문제도 自信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파고든다. 이러한 것이 바로 科學精神이라 일컬어지지만 하여튼 나는 어릴때부터 어떤 事物에 접하면 기어이 理致에 到達하고 마는 性格이었다.

專門學校 때의 내 別名 또한 不恥下門이라 불려졌다. 이것은 松都高等普通學校 때의 別名 고질콜콜과 연관이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下級生이나 同級生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데에 起因되리라.

即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問題이든지 알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性格 때문에 「고질콜콜」·「不恥下門」이란 別名이 주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나 자신을 回顧해 볼 때 특별히 數學에 天才라든지 理學에 天才的素質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역시 내가 理學을 하게 된 直接的인 動機는 평소 부지런한 性格과 事物에 대한 끈질긴 執着에 있다 하겠다.

나는 松高때 3人組로 통한 親舊가 있었다.

우리 셋은 자주 會食을 하며 학교공부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셔도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셋 중 두 친구는 工學과 醫學을 하겠다고 했으나 나는 어떤 動機가 되었던간에 理學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우연한 契機가 되었던지 나는 끝내 理學方面으로 나가고 한 친구는 上海를 거쳐 美國의 MIT를 마쳐 工學을 專攻하고, 醫學을 하겠다던 또 한 친구는 도중 下車를 하고 말았다.

내가 다니던 松高엔 지금의 金蘭女高校長 李喆卿씨의 父親 李만규씨가 계셨다.

醫學專門이어서 원래 生理學선생이었으나 당시 物理나 化學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 1, 2學年 物理·化學 그리고 科學까지 가르쳤다. 나도 그분한테 배웠는데 특히 物理에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던 때 일이다.

나는 李만규선생으로부터 萬有引力의 法則을 배웠는데 그 法則에 疑問이 생겨 고질콜콜 따져 선생님을 화까지 나게 한 일이 기억난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萬有引力의 法則은「두 물체의 質量 上昇積에 비례하고 距離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때 李만규선생님으로부터 萬有引力의 法則을 배운 나는 빨리 理解가 되지 않고 자꾸 疑心이 갔다.

그래서 나는 先生任에게 물기를 『距離가 멀면 멀수록 引力이 弱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나 하필 이런 自乘이 됩니까, 왜 3自乘이나 5自乘이 되지 않고 自乘이 되는 算出基礎를 대주십시오』라고했다.

이러자 李만규선생은 내가 理解할 수 있는 算出基礎를 대지 못하고 『自乘이 되는 것은 法則이니 그 法則 그대로만 알아두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며칠간을 두고 『아무리 法則이라 해도 根據가 있는 法則이어야 한다』며 『法則은 經驗에 의한 法則일 수도 있고 實驗에 의한 法則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質量上昇積에 정비례하고 距離의 自乘에 역비례 하느냐』고 물고 늘어지자 李만규선생은 벌떡 화를 냈다. 『法則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캐물어대! 내가 아나!』하고 李만규선생은 큰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사소한 것으로 선생님을 화까지 나게 한 나는 그런 일이 있던 후에도 萬有引力의 法則을 理解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고 같은 반에 대성학교에서 物理學을 하고 松高에 編入한 임某라는 級友를 찾아 물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점심을 먹고 그를 松高 뒷산으로 데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느냐』고 묻자 그는 선뜻 『안다』고 대답했다. 성급히 그의 대답을 재촉하는 내게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력이 많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력이 약하다』는 뜻이라고 말해 다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程度는 나도 이미 아는 것이었고 내가 모르는 것은 『왜 上昇積이고 왜 自乘이 되느냐』였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배가 말한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說明을 계속했지만 나는 끝내 納得을 못하고 그대로 넘겼다.

나는 이런 일이 있던 후에도 지레의 原則을 터득하기 위해 느티나무 밑에 가서 나무와 돌을 주어다 놓고 장난을 한 적도 있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物理에 상당한 취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결코 數學에 天才라기 보다 數學은 物理와 직접 관계가 있어 자연히 數學을 하게 된 것이고 그 方面에 열중하다 보니 學校成績 또한 좋아 數學에 天才라 불리었다.

또 松都高等學校 때 다음과 같은 일도 있었다. 그때 日本富士大學 출신인 윤병섭선생이 계셨다. 그 선생은 걸모습은 허름하게 생겼으나 아는 것이 많은 學者였다.

그런데 윤병섭선생은 아는 것은 많아도 발표력이 없어 學生들에게 理解를 못시키는 것이 큰 흠이었다.

수업시간에 내가 묻고 따져 그 선생을 난처하게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내가 묻는 問題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發表力이 부족해서 對答을 못하는 그 선생은 화가 치밀었던지 내 문제를 끝내 敎職員會議에 올려 버렸다.

그 선생은 敎職員會議에서 『최규남이란 학생이 수업시간에 내 실력을 저울질 할려고 괜한

☆ 特別企劃 ☆

트집을 잡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다.

이때 **李만규** 선생이 앞에 나서 『최규남 학생의 그런 것은 알고도 하는 원래의 성격이지 당신의 무게나 저울질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득, **윤병섭** 선생을 양해시켜 아무일 없이 넘어간 적도 있다.

이와같이 고질כול한 性格때문에 本意 아닌 誤解도 많이 받았지만 내 性格을 理解하는 몇몇 선생은 무척귀여워하고 따뜻한 指導를 해주었다.

특히 物理 선생 **李만규**씨는 愛之重之 그의 實驗室 조수로 있게 하여 장차 내가 해야 할 物理學의 基盤을 굳히게 했다.

♣ 向學의 執念

1918年 松都高普 第1회로 卒業한 나는 進學을 하고 싶었어도 經濟的 背景이 여의치 않아 母校인 松都高普 體育 선생으로 就職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첫 月給은 15원! 당시 쌀한가마에 2원 할때 인지라 그렇게 薄俸은 아니었다.

그곳에 2年餘間 몸담아 있었던 나는 開城市民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체조선생으로 한때 이름을 떨쳤다.

나는 體格이 좋아 체조선생으로 발탁되어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원래 내 꿈은 科學이다 하고 항상 向學의 執念을 버리지 않았다.

그곳에 勤務한지 얼마 안돼 70원이 된 月給에서 매달 30원 이상 學校에 貯蓄을 했는가 하면 日本에서 發刊되는 數學, 物理講義 책을 모두 消化하고 延專에 入學하기 위한 체비로 그곳서 가르치는 英語책 네이셔널 리더를 5卷까지 能通했다.

그러나 **王영덕** 松高校長은 내 뜻과는 달리 키도 크고 건장한 나를 體育專門 선생으로 養成시키려고 했던 모양이다.

하루는 **王**校長이 나를 부르더니 校費生으로 한달에 80원을 들머이니 日本東京에 가서 2年間 體育를 배워 오느게 어떠냐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千不當萬不當하다고 생각,

王校長에게 『말씀은 고마우나 2年後 進學하여 科學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때 **王**校長의 勸誘를 받아 드렸더라면 지금의 나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후도 日本人들로 구성된 鐵道局 野球팀에서도 좋은 條件을 제시, 스카웃의 손길을 뻗었으나 이를 모두 거절하고 2年間 貯蓄한 7百 20圓으로 延禧專門學校 數物科에 入學했다.

1922年 延專에 들어가보니 數學 선생은 훌륭한 분이 몇명 있었으나 物理 선생은 변변치않아 4年間을 스스로 공부한 셈이다. 그런 속에서도 나는 物理에 큰 關心을 갖고 공부, 卒業後 곧 바로 美國에 가서 修學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1926年 優秀한 成績으로 曠賞 卒業을 하고 보니 내가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았다.

당시 내 經濟的 與件은 美國에 갈 旅費 마련도 어려웠다. 이런 나는 卒業後 곧 바로 美國에 가지 못하고 1年後인 그 다음해에 건너갔다.

한편 延專學校當局은 나를 試驗室 助手로 月 100원씩 추기로 결정하고 내 決心만을 기다리던 어느날 松高교무주임이 찾아와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이 提議를 받고 앞으로 美國을 가기 위해서는 試驗室에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선뜻 결정을 못하고 며칠간 망설였다. 그러나 나는 이 問題를 오래 끌 수 없어 試驗室엔 延專同期인 金현성씨를 보내기로 하고 나는 松高에 갔다.

亦是 松高에 1年間 근무하면서도 매달 貯蓄한 돈이 美國에 갈때는 1千 2百圓이나 되어 남의 폐는 끼치지 않아도 되었다.

美國에 건너간 내 目標은 미쉬건州立大學 入學이었다. 그런데 미쉬건大學은 美國內 正規大學을 나오지 않으면 入學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오하이오 웨스리안大學을 거쳐 미쉬건大學에 들어갔다. 나는 미쉬건大學院을 卒業하기 까지 6年間 고생이 많았다. 당시 神學分野만 스칼라십을 얻을 수 있을 뿐 科學을 專攻하는 사람은 일체의 特典이 없어 苦學을 해야만 했다.

한 學期 등록금은 75弗이므로 年 150弗이 있

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여름放學이 되면 일자리를 구해 300餘弗을 벌어 등록금을 내기도 하고 試驗室 機械도 닦아 모자라는 생활비 보충을 했다.

미취진大學에는 훌륭한 教授가 많았다. 그중에 웬드리라는 有名한 教授가 있었는데 그는 나를 퓌 귀여워 했다.

키가 적은 웬드리教授는 1957년 내가 美國을 방문했을 때 100歲에 가차와 귀가 먹었는데도 아직 試驗室에 있었다.

大學院 시절 하루는 웬드리教授가 불러 그의 앞에 서자 HCN에 대해 研究를 해보라는 것이었다. HCN은 1913년 독일 分光學者 파슨의 弟子가 分光學的으로 이미 分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CN에 대해 더 研究해 보라는 것은 어떤 理由가 있으리라 생각한 나는 HCN의 基礎 공부부터 많이 해야 하고 試驗機具를 마련해야 했다. HCN의 慣性能率을 測定하는 機械를 설치하자면 3千弗의 費用이 있어야 하나 내게 그 많은 돈이 있을리 없었다. 다행히 웬드리教授의 배려로 반절만 내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반액 1,500弗도 200弗만 내가 내고 나머지는 學校에서 부담, 반년만에 시험기계를 설치했다. 나는 그때부터 지하실에 설치된 試驗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研究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難關이 있었다.

指導하는 教授는 웬드리였으나 實際로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웬드리밑에 있는 E. H바카 教授였다.

나는 E. H바카教授와 매일 計算尸으로 계산하고 커브를 그려 慣性能率測定을 위한 實驗을 하는데 갑자기 커브가 荒唐無稽하게 떨어져 이는 不可思議였다.

이러한 상태가 3~4개월이나 계속되어 그동안 實驗데이터의 日日報告도 못한 E.H바카와 나는 무척 고심했다.

그때 나는 豫備試驗을 마쳤고 몸도 쇠약해져 HCN의 實驗結果를 빠른 時日안에 발표해야 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모든 資料를 들고 웬드리 教授를 찾아 갔다.

내 이야기를 듣고난 웬드리教授는 『科學者는 自然을 研究하여 새것을 發見하는 것이다. 發見

할 뿐만 아니라 그 發見한 새로운 事實에 學的 體系를 굳히는 것인데 이와같이 할려면 첫째 條件이 참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내가 성급한 양으로 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듯한 기미를 웬드리教授 얼굴에서 읽고 아차 잘못 됐구나 했다. 그래서 나는 조용한 말로 『문제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병행해볼까 해서 찾아왔다』고 하자 웬드리教授는 『몇 달 연구로 새것을 발견해서 博士가 되려고 했느냐』며 『실험과정에서 어떤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잠자코 좀더 해보라』했다.

그후 웬드리教授는 내 試驗室에 내려왔다.

베드·빵·커피 등 살림 道具가 즐비한 試驗室에 내려온 웬드리教授는 그곳을 돌아본 후 『낮에 實驗하던 것을 밤 1시부터 6시 사이에 실험하여 데이터를 내보라』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그는 『하여튼 그렇게 해보라』는 말만 남기고 나가 버렸다.

그후부터 나의 生活은 晝夜가 바뀐 셈이다.

웬드리教授가 하라는 데로 밤 1시부터 實驗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기를 3~4개월——. 그제서야 실험이 제대로 되었다.

그래서 나는 웬드리教授에게 실험이 제대로 된다고 말하자 그는 『보아라! 내가 참으라고 말하지 않더냐』며 실험시간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네 試驗室이 아무리 조용한 곳이라 하더라도 낮에는 열방에서 X-Ray를 터뜨리고 건물 주변을 지나는 自動車 振動으로 말미암아 바로메타에 影響을 주어 이상이 온 것이다』라고 그는 일러 주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내 實驗에 病痛이 된 端緒를 잡았다. 결국 나는 1년반만에 HCN의 慣性能率計算에 성공, 1932년 1월에 발표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다음해인 1933년 韓國 사람으로 처음 미취진大學에서 博士學位를 받고 귀국했다.

그런데 博士學位를 받은지 半世紀가 다 된 지금도 한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

내가 大學院과정을 마친후 곧바로 歸國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곳에 좀더 머물러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博士學位를 받은 나는 權威者가 되었다기 보다 스스로 學者가 될 수 있는 能力

☆ 特別企劃 ☆

을 굳혔으므로 계속 實驗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또 배우고 해서 5년간만 더 머물러 研究를 했더라면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무렵 아무리 母校인 延專에서 歸國하라고 해도 이를 거절해야 했을 것을……하고 가끔 후회를 한다.

♣ 科學觀

1933년 歸國한 나는 延禧專門學校教授로 있게 됐다. 그때만해도 우리나라에는 科學을 하는 사람이 드물었고 더우기 atomic physics 등 所謂新物理學을 專攻한 사람은 나 혼자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學校當局에 美國 學界動向을 설명, 兩子論, 兩子力學, atomic physics를 教科에 넣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實驗施設은 荒蕪地나 다름없어 내 뜻대로 하지 못했다. 제대로 實驗室을 차려 놓자면 너무 방대한 豫算이 所要되는데다 또 내가 美國서 했던 實驗施設 하나 갖추어 놓았다해서 우리나라 科學이 발달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때 大韓民國에 科學知識을 廣과 幅으로 널리 퍼지게 있다고 보았다.

즉 科學知識 普及에 중점을 두어 基礎를 잡고 先進國家의 科學動態를 우리가 쫓아 가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나의 科學觀이었지 그들을 알릴려 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新物理學을 導入한 나는 이러한 科學觀을 가지고 延專에서 約 8年餘 兩子論·兩子力學·分光學·原子物理學을 가르치다 解放되던 해인 1945년 서울大學으로 옮겼다.

서울大學에 있으면서도 한 나라의 發展基礎가 되는 科學技術에 대한 綜合體制가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했었다.

이런 나머지 美軍政때 나는 科學技術院 설립 마스터 플랜을 마련코 延專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어 매우 걸친한 俞億兼文敎部長을 찾아가 우리나라의 科學振興을 위해서는 科學技術院을 만들어야 하며 이곳서 모든 科學을 綜合的으로 발달시켜야 한다고 強調한 적도 있다.

그후 俞億兼씨가 作故하고 내가 서울大에서

敎務處長으로 있을 때이다.

美軍政 文敎部長 吳天錫씨가 찾아와 次官으로 와 달라고 했다.

이때 나는 『次官할 意思是 없고 내 宿願인 科學技術院을 만들어 주면 그곳에 가서 자리를 타하지 않고 내 事業場으로 여기며 일하겠다』며 吳文敎部長의 提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던 얼마후 美軍政末葉 文敎部에 科學敎育局이 생기자 또 吳天錫씨가 찾아왔다.

내게 그는 『이제 자네 所願을 풀었네! 科學敎育局이 생겼으니 次官을 마다한 자네가 局長으로 와주어야 되겠네……』라고 말했다. 좀더 나은 것을 構想한 나는 科學敎育局이라는 것이 마음에 안들었지만 내가 평소 科學技術전담기구 설립을 主張한터라 이번엔 吳天錫씨의 提議를 거절할 수 없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局長이나 課長이라는 職位에 關係치 않고 오직 내나라를 찾았다는 기쁨에서 事業本位로 일을 맡아했다. 그 예로 후에 原子力院長을 歷任한 바 있는 金鳴善씨도 科學局 課長이었고 李源喆씨 같은이는 觀象臺 臺長職을 맡아 했다.

나는 1948년 初代 科學敎育局長으로 就任하여 일을 하면서도 不滿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4개課로 나누어진 科學敎育局은 각 實業學校의 실험기구까지 關장하였지만 豫算이 없어 한 가지 일도 벌일 수가 없었다.

♣ 科學技術院 발족

1948년 大韓民國 政府樹立이 되고 安浩相씨가 初代 文敎部長官이었을 때의 일이다.

나는 科學敎育局長 資格으로 당시 반도호텔에 자리를 잡고 있는 ECA를 찾아가 科學實驗機具 購入資金을 요청, 100萬弗, 200萬弗을 타내 各學校에 나누어 주어 科學振興에 힘썼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다시 나는 주위 스텝들과 研究를 하여 科學技術院 설립 具體案을 차트로 만들어 李承晚大統領에게까지 보여 주었다.

李承晚大統領은 科學技術院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 說明을 다 듣고 나서 『옳은 말씀이다』고 긍정한 후 『科學을 振興시키려면 Over all body가 있어야 된다』며 『더 研究해보라』했다. 그 자

리를 물러 나온 나는 다음날 朴哲在博士를 모시고 李始榮副統領과 申翼熙씨를 찾아가 역시 우리나라의 科學振興을 위해서는 科學技術院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해야한다』라고만 말할뿐 애를 태우는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분은 없었다.

더우기 政府樹立후 文教部 분위기는 局과 局간에 철조망을 쳐놓은 것같이 삭막하고 신설 科學局은 제일 弱體여서 豫算도 없었다. 따라서 文教部 豫算으로는 우리나라 科學振興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앞섰다.

그래서 나는 더욱 ECA와 절충, 援助를 요청했다. 나는 ECA援助資金으로 1949년 10월 3일 第1回 科學 展覽會를 개최했다.

그때 展覽會 所要豫算이 총 200萬원이었는데 ECA支援金으로도 모자라 나는 日本서 發刊된 物理·化學 數本을 翻譯, 그 收益金으로 충당했다. 1週일간 開催된 이 展覽會에 學生등 約 10萬餘名이 동원되었는데 특히 開會式엔 李承晩 대통령을 비롯 李範奭씨와 申翼熙씨 그리고 ECA의 콜러씨등 内外貴賓이 많이 참석했다.

나는 이날 科學振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開會辭를 했다.

이날 開會辭에서 『過去 우리나라가 발달하지 못한 원인이 科學振興을 시키지 않은데 있으며 또 現政府가 當面問題와 根本問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科學에 대한 關心이 없다』고 강조했다. 即 科學振興에 無關心한 政府를 때리는 따끔한 開會辭가 된 셈이어서 行政府人士들의 기분을 거슬렀을지 모른다. 그러나 申翼熙씨만은 그렇지 않는듯 했다. 開會辭에 이어 祝辭를 마치고 난 申翼熙씨는 내 옆에 다가와서 『局長開會辭는 名演說이야』라고까지 했다.

開會式을 마치고 李承晩大統領을 비롯 貴賓을 모시고 展覽會場을 안내한 나는 이들로부터 훌륭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었다.

그런데 科學展覽會에 趣味를 갖고 關心을 보인 것은 의외에도 ECA幹部들이었다.

科學과 關聯있는 이들 스태프 20餘名은 나를 찾

아와 다음날 자기네들만 따로 모여 달라고 했다. 그래서 새로 發明한 타이프라이터 등을 말끔히 진열시키게 하고 나는 다음날 이들에게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것이 契機가 되어 이들로 하여금 韓國에 科學의 頭腦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후부터 ECA는 韓國科學을 發達시키기 위해 科學補助金을 대폭 늘려 지원해 주었다. 한편 展覽會에 대한 西洋사람들의 좋은 評으로 文教部 科學教育局 존재가 좀 올라간 셈이 되었다.

나는 이때부터 ECA의 콜러씨등과 자주 접촉, 우리나라 科學技術 振興策에 대해 수차 논의하던 끝에 ECA와 共同 科學技術院을 조직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콜러씨는 資金은 자기네들이 대겠으므로 院長은 자기가 하고 나는 副院長이 되라고 했다. 또 나와 그는 ECA에서 技術者를 대고 우리側선 垆地제공과 機具設置를 하여 우선 短期技術者養成所부터 세우기로 했다.

이리하여 1950년 내 脚本대로 中央廳會議室에서 各部長官과 ECA幹部들이 참석한 가운데 科學技術院이 발족했다. 科學技術院이 發足되자 ECA는 그해 6월 18일경 美國技術者 26명을 오게하여 일부는 귀국시키고 일부는 남게했다.

한편 우리가 提供하기로 한 場所問題로 오랫동안 육신각신 하였지만 결국 龍山에 있는 鐵道局機械工作廠를 短期技術者養成所로 使用하기로 하고 建物內部를 補修, 전부 美國式으로 機械를 설치해 놓았다.

그런데 이 무슨 靑天霹靂인가.

痛恨의 6.25事變으로 모든 것이 中斷되고 말았다.

그후 콜러씨는 잠시 日本東京으로 避亂을 갔다가 그후 내가 있는 釜山으로 와서 다시 始作하자고 했으나 모든게 여의치않아 그곳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후도 나와 콜러씨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

이와같이 科學技術院이라는 것이 美國사람과 Joint Venture형식으로 발족되긴 했으나 6.25로 수포화된 것이다. (문책: 차준진)